



[일본의 녹색 중소기업 육성정책]

경제산업성,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절약 사업조성금 지원

에너지 절약 노력의 사각지대인 중소기업

일본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대기업은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의 적용을 받아 에너지 관리 대상으로 지정받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에너지 삭감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에 대한 관심 부족, 기술이나 자금의 부족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의 사각지대에 있어왔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인 에너지 절약 서비스(ESCO : Energy Service Company)를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조성금을 교부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담당기관은 경제산업성 관할법인 중 하나인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http://www.smrj.go.jp>)로 올해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하고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에 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ESCO

ESCO란 에너지절약에 관한 제안, 시설 제공, 유지관리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총칭이다. ESCO는 고객기업에게 에너지절약에 관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여 운영비용을 절감하게 해주고, 이렇게 절감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에서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받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ESCO가 고객의 비용 삭감에 실패한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이 없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 1970년대 말 미국에

서 태동한 이 서비스는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약 42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지원 사업 세부 내용

① 지원 대상사업

원칙적으로 기존 공장, 사업소에서 ESCO를 통해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사업이 대상이다. 신설 공장 및 사업소의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지원 대상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ESCO사업자가 지원 대상자로,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 및 ESCO 사업자가 공동으로 한다.

- 일본 국내에 본사 혹은 주사무소를 두고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자
- ESCO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또는 조성사업 기간 중에 체결할 예정인 자
- 공적자금 교부대상자로서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이 될 수 없다.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동일의 대기업 또는 그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를 복수의 대기업 또는 그 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③ 조성 대상 경비

설비비	기계장치·건축재료 등의 구입, 제조(개수 포함함),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
계측장치비	계측장치의 구입, 개조,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
공사비	공사에 필요한 경비

조성 대상이 되는 경비와 대상이 되지 않은 경비의 예는 아래 표와 같다.

설비비	
대상이 되는 경비	보일러, 공기조절설비, 온수공급 설비, 조명 설비, 트랜스, 폐열회수 설비, 고효율냉동기, 압축기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설비
대상이 되지 않는 경비	토지 취득·임차·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기존 설비의 철거·처분에 걸린 비용, 범용성이 높고 사용목적이 당해 사업에 특정되지 않는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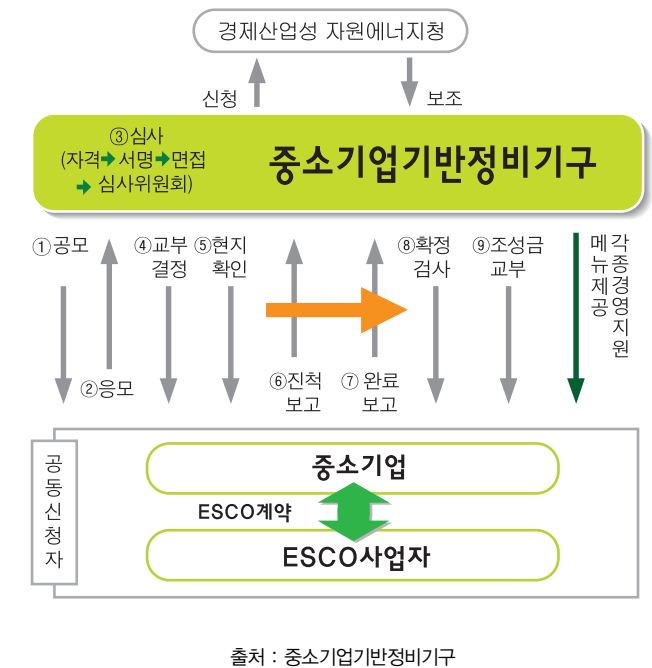
계측장치비	
대상이 되는 경비	온도, 전력, 기타 에너지를 계측하는 장치·기기(BEMS)
대상이 되지 않는 경비	토지의 취득·임차·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컨설팅 비용 등 계측 후 해석에 필요한 비용, 컴퓨터, 프린터 등 범용성이 높고 사용목적이 해당 사업에 특정되지 않는 제품에 대한 비용

공사비	
대상이 되는 경비	기초공사, 배전·배관 공사, 단열·보온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경비	토지 취득·임차·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기존 설비의 철거, 처분에 걸린 비용, 당해 조성사업과 직접 상관없는 공사에 걸린 비용

④ 조성률 및 상한금액

조성률은 조성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비의 50% 이내이며 전 당 조성금 상한은 3,000만 엔이다. 단, 사업완료 후에 조성금이 교부되므로 사업 기간 중에는 별도로 필요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사업조성금 지원 개념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사업 지원으로 온실가스 삭감 기대

세계 5대 온실가스 배출국 일본은 2005년 교토 의정서에 의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삭감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온실 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1990년 대비 8.7% 증가하여 향후 교토 의정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하토야마 신임 총리 내정자는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민당 보다 높은 1990년 대비 25%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코펜하겐에서 12월에 개최되는 UN 기후변화 협상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기후변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화된 목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산업계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확대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9월부터 실시되는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사업의 성과가 기대된다.